

창세기(6)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식물, 동물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 다 창조하시고, 수많은 별들을 다 창조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사람에게 주었고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신 걸까요? 우리 인간이 죄를 저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만 그래서 주님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미 그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창조 당시 인간에게 맡겨주었던 그 형태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창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다. 창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식물과 채소가 나라고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시다.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라” 하시니까 났어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할 때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입을 통해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인데 요즘 크리스천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뭘 봐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이 더할 것이다. 모든 것이 안 보이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이 창조의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돈이 없어도 눈물을 머금고 열심히 끝까지 하게 되면, 물질의 창조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어요.

돈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면 껌소리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상에 안 지려고 어떻게 하던지 건물을 짓고 엄청나게 쌓아놓고 “어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뒤에서 우리가 쓸 만큼 따라오게 되고, 이 땅에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할 줄 알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행에 쌓아놓아야 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해서 쌓아야만 그걸 보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우리를 위해 봉사하는 물질 창조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17 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창공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게 하시며, 해와 별과 달을 하늘에 두시고 땅 위를 비추셨다. 바로 지구입니다. 비록 지구가 콩알 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는 별입니다. 물론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면 하늘과

땅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겠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지구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우리가 살 곳이지요. 18 절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들을 설치하신 목적이 표적과 계절과 날수와 연수 그리고 빛을 내기 위해서라고 14 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태양과 달을 인간에 거주지로 주신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목적으로 주셨지요.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세상 경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입양되는 이 일이 다 끝난 다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 받고, 다시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이 땅에 내려오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태양과 달과 별들은 사람들이 거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땅을 비추게 하려고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5 편 16 절을 보면 하늘,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사람의 자손들에게 주셨도다. 아직까지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땅입니다. 지구입니다. “The earth” 그러나 인간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달나라를 정복하겠다고 거기에 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과학의 진보라며 그 업적을 찬양하고, 아폴로 계획이라 하면서 찬양하지만 이것을 누가 했습니까? 케네디입니다. 케톨릭 교도인 케네디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진보요. 인간이 만들어낸 챌린지, 도전이고 쟁취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하늘을 침입한 침범 행위이자 경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인간이 달에 다녀오긴 했을지라도 휴거가 있기 전에는 인간이 그곳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에 돈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 미국 땅을 볼 때 참 기가 막힙니다.

미국 25%의 어린아이들이 영양결핍증으로 헤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왜 그렇습니까? 쓸데없는 돈들을 별들과 하늘을 정복하려는 전쟁에다 소련과 미국이 투자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군대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에 완전히 역행하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귀하면 다른 영혼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은 아니지만 저들도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옛날 아담처럼 통치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길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이 변화될 것을 우리가 안다고 했어요. 이 세상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저 태양 중심으로 이 지구와 사람을 아주 조그맣게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를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 수 있는 말씀들을 신구약 66 권에 주셔서 이 말씀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만 하면 창조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보고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 선포를 안 하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안 하니까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 날 감사 못할 일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어휴, 어떻게 감사해?’ 감사해야만 감사가 창조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해야 기도가 창조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받는 거지요. 기뻐하라, 기뻐해야만 기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슬플 때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고통받으실 때와 가슴이 아프실 때도 그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옵소서.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찬송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요즘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다 취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취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 쓰여진 구약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복음서는 아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 후에 하신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세 분이 하나라고 했으니 다 창조주가 되시니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요,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너 이 말씀이 능력인데 너 왜 안 믿었느냐? 이 말씀에 모든 보화가 다 들었는데 왜 네가 안 했느냐? 네가 안 해서 그런 것이지 내 잘못 아니다.”라고 하실 텐데. 이런 말씀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아멘. 생겨나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 것도 없어도 우리가 이미 생겨났는데, 생겨나서 이미 구원까지 받아놓았는데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라 하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만 잘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억누르고 방해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입을 벌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전에는 꼭 사탄이 방해를 하고 그것을 못 보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화를 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 직전에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화를 내게 만들어서 화를 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이것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항상 그렇습니다. 요번에 우리가 유카탄에 다녀왔을 때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몸을 아프게 하고, 크리스토퍼 목사도 이상한 일이 생겨서 돈 백 불을 물어줘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고, 하지만 크리스토퍼 목사는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영적 전쟁을 안다는 것이죠. 어제 누가 전화가 와서 말하길 “아, 내가 거길 다녀와서 백 불이 생겼는데 이것을 갖다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딱 주님께서 응답하시잖아요. 이젠 이런 영적 전쟁에 익숙해져서 절대로 쓰러져서는 안 됩니다. 이젠 앞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다. 아멘.

나가다 쓰러지면 또 한참 걸립니다.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이미 받았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미 신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이제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고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신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들이 우리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갈 때 저들이 우리를 절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느냐 아니면 멸시를 당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므로 선포하시므로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책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엄지손가락만한 못이 손바닥도 아니 손목에 발바닥도 아닌 발목에 사정없이 박힌 것만 해도 주님은 이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건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조금만 환경이 나빠지면 그냥 힘이 빠지는 이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시고 창조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더 이상 범죄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다 받아서 선포함으로 빛의 놀라운 역사가 어둠을 비추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랑의 빛이 이웃 사랑의 빛이 저들에게 비출 때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땅히 어떤 것을 받아야 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빛을 비출 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많은 혼들이 고통 속에서 어둠 가운데서, 지하 가운데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